

간호대학생의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 체험에 관한 연구

김인경, 왕미숙*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Patient Experience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In-Kyoung Kim, Mee-Suk Wang*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 체험이 간호대학생의 환자에 대한 관심도,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공감, 간호의 의미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직전 학기까지 임상 실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간호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개 대학교 4년제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7일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구성내용은 지체부자유 장애인 체험과 시각장애 체험이었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2명의 연구보조원이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관심도,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공감, 간호의 의미를 측정하였다. 실험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에게 같은 설문지로 프로그램 직후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으며($t=-6.191, p<.001$)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의 7가지 항목도 모두 유의하였다($p<.001$). 프로그램 후 일상생활 만족도도 유의하게 높아졌으며($t=-5.465, p<.001$) 장애인에 대한 공감의 변화도 유의하게 높아졌다($t=-6.125, p<.001$). 프로그램 후 장애인에 대한 간호의 의미도 유의하게 높아졌다($t=-6.125, p<.001$). 본 연구로 장애인 유사체험의 교육효과를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effects of the disabled like program on the interest, attitude,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and sympathy among nursing university students. Overall, 70 nursing student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program contents included experiences simulating those of physically and visually handicapped persons. On the first day of the program, two study assistants measur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terest level, attitude,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sympathy and meaning of nursing among study subjects. These factors were then measured again using the same form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The interest level among disabled person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program ($t=-6.191, p<.001$), and also seven items on the attitude changes to the disabled persons were significant ($p<.001$). After the program,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their daily lives increased significantly ($t=-5.465, p<.001$), as did their sympathy for disabled persons ($t=-6.125, p<.001$). In addition, the meaning of nursing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program ($t=-6.125, p<.001$).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disabled like program experience had positive educational effects.

Keywords : Disabled, Meaning, Nursing, Program, Satisfaction,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라의 추정장애인구는 2000년 약1,449,496 명이던 것이 2014년 2,726,910명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 장애인구가 1,277,414명 증가하였다[1].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Corresponding Author : Mee-Suk Wang(Hanseo Univ.)

Tel: +82-41-660-1588 email: mswang@hanseo.ac.kr

Received November 15, 2017

Revised (1st December 22, 2017, 2nd January 4,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를」(이하에서는 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 2016년 3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014년 조사대상 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88.9%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6.2%)이 사고(32.7%)보다 더 높게 나타남.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서 77.3%가 지속적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렇게 장애인들의 만성 질환 등으로 대부분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병원 내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및 기본적인 생각의 전환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진들의 태도 및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의료인이 장애인의 고통과 장애를 체험하는 것은 환자의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질병의 생물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신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여 환자 입장에서 장애 현상을 해석하므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3].

보통 의료인들은 환자의 몸에 나타나는 징후에 집중하거나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몸과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가 보내는 신호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즉, 의료에 있어서 환자의 주관성은 철저히 배제되고, 객관적, 정량적, 통계적 사고만이 가치 있게 된 것이다[4]. 질병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담지하고(value laden)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여기서 현대 의학의 주요한 방법론인 객관적, 정량적 방법으로는 질병의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 가다머(H.G. Gadamer)의 생각을 해석해 볼 만하다[5].

그동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유사체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6, 7]. 부동에 대한 체험연구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였고 인식변화와 간호자원부족으로 인식하였다[8, 9] 치매환자 간호 체험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은 환자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거나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등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

이나 관점이 변하였음을 기술하였다[10]. 당뇨환자 체험에서는 이와 같은 체험이 당뇨환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간호중재의 민감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11]. 특히 장애인 유사체험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12].

최근 의료서비스 발전과 더불어 간호통합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간호사가 많은 기본간호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간호사는 장애를 가진 환자를 간호하는데 더 많은 심리적 및 신체적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을 고려한 충분한 간호 시간의 맞춤 적용을 통해 이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간호대학생들은 1000시간이라는 임상실습을 하고 있지만 임상실습 경험 상 이 같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서 장애인 환자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없다. 또한 수업 과정 중에도 따로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이 임상경험의 의미에 대해 가지는 태도, 공감 및 일상생활 만족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각 대상자들의 간호요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간호방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환자 체험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및 공감의 정도를 알아냄으로써 미래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사의 업무에서 환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및 정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체험이 간호대학생의 환자에 대한 관심도,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공감, 간호의 의미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1.3 연구가설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다.
제 1가설: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체험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 전보다 후에 장애인에 대한 태

도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제 2가설: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체험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 전보다 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일상생활 만족도, 공감, 간호의 의미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 체험이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장애인에 대한 공감, 장애인 간호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유사실험 설계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직전 학기까지 임상 실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간호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C도 1개 대학교 4년제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one sample 케이스 평균비교를 하는 것으로 효과크기는 중간크기 0.5,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그룹의 최소인원은 45명이 적절한 표본 수였다. 탈락률 30%로 고려한 결과 70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연구는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7일간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고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학생과 최근 3개월 내에 장애인 체험 경험 이 있는 대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대상자는 실험 후 일상생활의 경험을 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변수인 일상생활 만족도로 인하여 사후조사는 일주일 뒤에 시행하였으며 관심도 및 간호의 의미도 실험 직후에 바로 조사를 할 경우 프로그램으로 인한 감정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일주일 후에 사후조사를 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1문항, 장애인에 대한 태도 43문항, 장애인에 대한 공감 1문항, 장애인에 대한 간호의 의미 1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년, 종교, 장애인 관련 교육경험, 장애인 자원 봉사 경험, 장애인에 대한 간호 선호 여부 등 7문항을 질문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는 1문항(5점 척도)으로 5점은 관심도가 매우 높음, 1점은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43문항으로서 Siller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을 이중남[14]이 번안한 장애 태도요인 척도 43문항(4점 척도)을 사용하였고 4점은 그렇다, 1점은 그렇지 않다, 이다. 장애태도요인의 하위 척도로는 무조건적인 거부 7문항, 왜곡된 동일시 5문항, 추론된 정서장애 8문항, 손상되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6문항, 권위주의적 태도 4문항, 친교의 거부 6문항, 접촉 시 긴장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803이었다(Table 1).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1문항이며 10점은 만족도가 매우 높음, 1점은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801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공감정도는 1문항으로 '나는 장애인을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5점은 매우 공감 함, 1점은 전혀 공감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745였다. 장애인을 간호의 의미는 1문항(5점 척도)으로 5점은 매우 의미 있음, 1점은 전혀 의미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876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주관식 1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Table 1. Subscale of Siller's DFS (N=70)

Category	Context no.	Question number
Generalized rejection	11,17,20,27,28,33,43	7
Distressed identification	12,19,25,34,40	5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3,5,10,23,29,32,35,37	8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7,9,14,16,31,38	6
Authoritarian attitude	4,18,22,39	4
Rejection of intimacy	2,6,8,21,24,36	6
Interaction strain	1,13,15,26,30,41,42	7
Total question number		43

2.4 실험처치

본 실험 프로그램은 1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간호에 대한 국내 문헌을 고찰하여 프로그램의 주요한 내용,

측정도구를 선별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30분 동안 학생들에게 장애의 의미, 장애인의 삶의 과정의 이해,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 교육은 지루하지 않도록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림, 사진,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하였다. 프로그램의 주과정은 3시간으로 이뤄졌으며 장애인에 대해 느낀 점 쓰기, 인생그래프 그리며 인생 돌아보기, 장애의 장애 체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직접 체험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지체부자유 장애인 체험과 시각장애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지체부자유 장애인 체험의 내용은 휠체어로 이동하기였으며 휠체어를 타고 학교 내 보건의료학관 내의 경사 오르고 내리기, 문턱, 계단 오르고 내리기를 포함하였다. 시각장애 체험은 시각장애 체험용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건의료학관 내 복도 걷기와 외부로 나가서 학관 바로 앞 도로 걷기와 계단 오르고 내리기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30분은 장애인 경험에 대해 7개 그룹으로 나뉘 서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연구자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계 개선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구성하였다. 장애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2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1일 동안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는 안전요원으로 숙련된 보조자 2명이 참여하였으며 모든 체험은 교내에서 이루어졌다 (Table 2).

Table 2. Research design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 group	O ₁	Y ₁	O ₂

O₁: General characteristics, DFS, Interest, Daily life satisfaction, Sympathy, Meaning of nursing

O₂: DFS, Interest, Daily life satisfaction, Sympathy, Meaning of nursing

Y₁: Patient Experience for 1day

2.5 자료수집절차

자료 수집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2명의 연구보조원이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관심도,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공감, 간호의 의미를 측정하였다. 실험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에게 같은 설문지로 프로그램 직후 측정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및 이해관계

IRB 심의를 받지 못했지만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로 연구 윤리를 지켰다. 사전에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대상자에게는 본 연구의 참여시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 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각 시기마다 대상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자문 및 연구비 수혜 등의 이해관계가 없다.

2.7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SPSS/WIN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관심도,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공감, 간호의 의미의 전후 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21.97세이며 여자가 82.9%였다. 3학년은 68.6%, 4학년은 31.4%였다. 종교는 없음이 58.6%였으며 장애인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7%였다.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은 67.1%였다. 장애인에 대한 간호 선호 여부에서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67.1%였다 (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N=70)

Variable	n(%) or M±SD
Age	21.97±1.84
Gender	
Male	12(17.1)
Female	58(82.9)
Grade	
Junior	48(68.6)
Senior	22(31.4)

Religion	
Yes	29(41.4)
No	41(58.6)
Experience with disability related education	
Yes	29(41.4)
No	41(58.6)
Volunteer experi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Yes	47(67.1)
No	23(32.9)
Preference for nursing of the disabled	
Yes	47(67.1)
No	23(32.9)

3.2 프로그램 전·후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

프로그램 전·후에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를 보면(Table 4) 프로그램 전에 3.45±.82점이었던 관심도가 프로그램 후에는 4.02±.77점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t=-6.191$, $p<.001$).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4. Interest Pre-test and Post-test the program (N=70)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Interest	3.45±.82	4.02±.77	-6.191	<.001

3.3 프로그램 전·후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

프로그램 전·후에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왜곡된 동일시, 추론된 정서장애 요인,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요인, 권위주의적 태도, 친교의 거부, 접촉 시 긴장으로 7개로 분류하여 확인하였다. 무조건적인 거부요인($t=17.389$, $p<.001$), 왜곡된 동일시($t=4.032$, $p<.001$), 추론된 정서장애 요인($t=4.057$, $p<.001$), 권위주의적 태도($t=5.530$, $p<.001$), 친교의 거부($t=4.911$, $p<.001$), 접촉 시 긴장($t=35.631$, $p<.001$)은 프로그램 적용 전 보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요인($t=0.670$, $p<.505$) 한 항목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 1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8).

3.4 프로그램 전·후 일상생활 만족도 변화

프로그램 전·후에 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Table 5) 프로그램 전에 6.80±2.21점이었던 관심도가 프로그램 후에는 7.74±2.28점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t=-5.465$, $p<.001$).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5. Daily life satisfaction Pre-test and Post-test the program (N=70)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Daily life satisfaction	6.80±2.21	7.74±2.28	-5.465	$p<.001$

3.5 프로그램 참여 전·후 장애인에 대한 공감의 변화

프로그램 전·후에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공감의 변화를 보면(Table 6) 프로그램 전에 2.81±0.08점이었던 장애인에 대한 공감 점수가 프로그램 후에는 3.95±0.85점으로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t=-6.125$, $p<.001$).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6. Sympathy Pre-test and Post-test the program (N=70)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Sympathy	2.81±.08	3.95±.85	-10.205	<.001

3.6 프로그램 참여 전·후 장애인에 대한 간호의 의미 변화

프로그램 전·후에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간호의 의미 변화를 보면(Table 7) 프로그램 전에 3.87±1.02점이었던 관심도가 프로그램 후에는 4.48±0.63점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t=-6.125$, $p<.001$).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7. Meaning of nursing Pre-test and Post-test the program (N=70)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Meaning of nursing	3.87±1.02	4.48±0.63	-10.205	<.001

Table 8. DFS Pre-test and Post-test the program (N=70)

Category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Generalized rejection	16.12±2.15	12.15±2.51	17.389	<.001
Distressed identification	10.37±2.12	9.54±2.24	4.032	<.001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15.42±3.06	14.24±3.01	4.057	<.001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13.80±2.35	14.14±2.89	4.670	<.001
Authoritarian attitude	10.18±1.50	10.05±1.75	5.530	<.001
Rejection of intimacy	15.27±2.53	14.21±2.78	4.911	<.001
Interaction strain	18.45±1.88	11.42±1.73	35.631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유사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유사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노인 유사체험 [6, 7], 부동에 대한 체험연구[8, 9] 치매환자 간호 체험연구[10], 당뇨병자 체험 연구[11]가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나 관점의 변화, 간호중재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유사체험은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쳤고, 공감, 일상생활 만족도 및 간호의 의미 변화는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유사체험은 일차적인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이다. 장애인과의 경험이나 이해가 부족한 간호대학생들이 장애인 체험을 통해 공감정도가 상승하였다는 것의 결과는 교육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감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증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체적으로 불편한 환자에 대한 간호의 의미를 증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 체험을 한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거나 체험을 할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이고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14]. 따라서 일반인의 긍정적인 장애인 인식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체험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장애인에 체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사체험 후 대상자의 전반적인 태도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7, 11, 12].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회성 체험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였다[7, 13].

본 연구에서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 체험 전·후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왜곡된 동일시, 추론된 정서장애에 요인, 권위주의적 태도, 친교의 거부, 접촉 시 긴장($t=35.63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요인인 한 항목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체험 후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왜곡된 동일시, 추론된 정서장애요인, 권위주의적 태도, 친교의 거부, 접촉 시 긴장감의 모든 항목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7, 8, 11, 12].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일회성 체험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며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체험의 시기, 횟수, 체험 대상자의 준비도 및 체험적 시기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학생들은 커리큘럼에 장애인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상생활만족도는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 체험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사체험 관련 선행 연구에서 일상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어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8, 11].

장애인 유사 프로그램 체험은 장애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유사 체험 후에 전보다 공감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유사체험 후 태도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7, 11, 14, 16]. 현재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유사체험 연구가 국내외로 많지 않아 구체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사체험 전·후 장애인에 대한 간호의 의미 변화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와 공감 대처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자는 8주 후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 감정이입과 시간에 대한 압력이 감소하였다[17]. 이를 통해 체험으로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불안 감소로 질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체험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적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앞에 양적인 결과 부분에서는 언급할 수 없었던 부분을 1문항의 장애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기술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그 주관적인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양적 연구로서는 부족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노인 유사체험의 방법론적 취약점을 탐색 및 규명하여 향후 유사체험의 개발과 적용에 영하고자 함이었다. 유사체험의 효과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실험 체험에 참가한 대상의 일부는 장애인 삶에 대한 불편감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대부분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편견과 달리 동일한 인격체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향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장애인들을 간호 하는데 있어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을 거라고 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장애인 유사체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6년 간호학과 3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유사체험을 실시한 후 장애인에 대한 태도, 공감, 일상생활 만족도를 파악하였고, 대상자들은 실험 전, 후 체험관련 질문에 응답하였다.

장애인 유사체험은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에 대한 공감은 부분적으로, 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에 대한 간호의 의미 변화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태도를 공감하고, 관심도증가 돕는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체험자들은 1회성 경험의 한계성, 장애인 경험, 체험도구의 현실감이 부족, 체험 중 사고의 위험성 등 체험의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

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므로 이후 진행되는 장애인 유사체험에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로서 향후 연구 시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비교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장애인 유사체험이 대상자에 대한 관심도, 태도, 공감적 이해증진, 일상생활 만족도 및 장애인의 간호의 의미 등 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 꾸준히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유사체험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고 파악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학생의 커리큘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임상에서 환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불편을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S. H. Kim, Y. H. Lee, J. H. Whang, M. A. Oh, M. K. Lee, L. H. Lee, D. U. Gang, S. J. Kwon, H. G. Oh, S. Y. Yoon, S. Y. Lee, "Survey of the disable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 [2] H. S. Ahn, "Social welfare policy", Hyun-sa Publishers, Seoul, 2006.
- [3] J. H. Kim, "Medical interviews: (patient problem assessment, patient problem-solving approach)", pp. 37-38 Hakjisa Publishers, Seoul, 2002.
- [4] I. K. Hwang, "The Illness Experience and Illness Narrative, *Philosophy of Medicine*", pp. 3-28. 2010.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80199>
- [5] H. G. Gadamer(1993), Über die Verborgenheit der Gesundheit/Y.S.Yi Translation, "Philosopher Gadamer speaks modern medicine", Body and Mind Publishers, Seoul, 2002.
- [6] H. S. Oh, H. S. Jeong, "A Study on Nursing Students Elderly Patient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58-3367,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7.3358>
- [7] Y. O. Lim, S. H. Ryu, J. E. Sook, "Experience process of the undergraduates, aging simulation gam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4, pp. 263-284, 2011.
- [8] H. S. Kang, J. W. Kim, W. O. Kim, J. N. Park, C. Y. Lee, "The Changes in Interest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Disabled before and after the Disability Experience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7, no. 1, pp. 88-95, 2004.
- [9] E. J. Kwom, H. R. Park, Y. R. Wang, H. C. Jeong, "Experience Research of Nursing Students about Immobility, Asian-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cs and Sociology*,

vol. 15, no. 6, pp. 89-97. 2015.

- [10] E. S. Gong, M. S. Choi, "A Study on Nursing Experience of Demented Elderly Patient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23, pp. 9-36, 2014.
- [11] Y. S. Park, K. S. Choi, "The Experience of Patient Role in Adults with Diabet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3, no. 1, pp. 15-26. 2002.
- [12] Rimmerman, A., Hozmi, B. & Duvdevany, I. "Contact and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mong students tutor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vol. 25, no. 1, pp. 13-18, 2000.
DOI: <https://doi.org/10.1080/132697800112758>
- [13] J. N. Lee, "A study on the attitude of the general public to the disabled", Master Thesis, Seung Shim Women's University, 1994.
- [14] I. J. Jeon, "Comparing Different Views on Disabled by Catholics Due to Presence of Sunday Schools for Disabled",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3 no. 1, pp. 45-71, 2009.
- [15] E. S. Kong M. S. Choi, "Study 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aring Older Patients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23, pp. 9-36, 2014.
- [16] H. S. Oh, H. S. Jeong, "A Study on Nursing Students' Elderly Patient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58-3367,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7.3358>
- [17] A. E. Beddoe, S. O. Murphy, "Does Mindfulness Decrease Stress and Foster Empath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3, no. 1, pp. 305-312, 2004.

왕 미 숙(Mee-Suk Wang)

[종신회원]



- 1992년 2월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간호행정학석사)
- 2005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졸업(간호학박사)
- 1982년 9월 ~ 2014년 2월 : 서울의료원 간호교육팀장
- 2014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노인건강, 건강증진

김 인 경(In-Kyoung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성인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건강, 영양, 건강기능식품, 간호교육